

# 갑작스런 분양 통보...사업자 핏포 막아야

### ■ 시민 울리는 '매입입대사업' 이대론 안된다

### 광주 1만세대 달해...세입자 법적 보호 근거 없어

### 분양전환 시기·사전 공지 등 충분한 절차 있어야

아파트 매입입대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입대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6월 19일자 6면> 매입입대사업자가 입주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자기 분양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묵둔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는 집을 내줘야 하는 서러움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진다. 세입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청솔아파트 2300세대 중 1500여세대를 보유한 매입입대사업자 현대주택 등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분양전환 여부를 확인한 뒤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주택 등은 최근 지역 분양시장이 밝고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 등도 확보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

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중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금융권(국민은행·외환은행 등)과 비금융권(디딤돌 등)을 통해 해당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입장과 달리 일부 세입자들은 갑작스런 분양 결정에 당혹해하고 있다. 당초, 550만~2880만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 생활 여건을 감안하면 기존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추가 대출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다른 집 물색에 나설 태세다. 그나마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이들 하소연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지난해 말 광주지역 매입입대사업자 수는 560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세대 수는 모두 1만1412세대에 이

다. 일부 임대아파트에만 국한하는 문제점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매입입대사업업을 감안, 임대사업자의 분양 전환 결정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충분한 분양 전환 시기를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산정방식 등 갑작스런 분양전환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보조금에 눈 먼 지자체 투자유치 사업

### 면적 부풀리기·분양대금 횡령 등 불법 자행...과격 인센티브 등 재검토 필요

### 검찰, 나주·영광산단비리수사 공무원·브로커 등 17명 기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격적 인센티브까지 내걸고 추진했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도권을 비롯,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숫자 놀음에 그치거나 브로커들과 유착, 국가 보조금이나 '성공보수' 등을 받아 챙긴 기업 대표·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전남도는 한 때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2억원을 준다'며 과격적 인센티브까지 내걸고 투자 유치가 나서기도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9일 나주·영광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전 기업들의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를 벌인 결과, 기업 이전과정에서 보조금 부풀리기,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모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 2명(구속),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2명(1명 구속·기업이전 컨설턴트(구속), 기업 관계자 12명(7명 구속) 등이다.

기업들은 브로커와 짜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존 수도권 부지 면적을 부풀려 기업별로 5억~15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역에서 사업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는 기업도 적지 않았고 일부 기업은 수사 시작 전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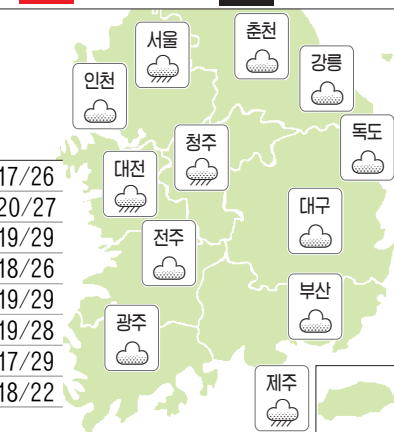
"노인학대 안됩니다"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주간인 19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회원들이 동구 금남로에서 노인에 대한 무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물결 00:23  
해질 19:50    물결 12:59

주말부터 장마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0/30	보성	흐림	17/26
목포	흐림	19/26	순천	흐림	20/27
여수	흐림	19/24	영광	흐림	19/29
나주	흐림	19/30	진도	흐림	18/26
완도	흐림	19/25	전주	흐림	19/29
구례	흐림	18/29	군산	흐림	19/28
강진	흐림	19/27	남원	흐림	17/29
해남	흐림	19/27	축산도	흐림	18/22
장성	흐림	18/2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1.0~1.5
	면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	안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1.0~1.5
	면바다	남동~남	1.0~2.0	동~남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72
운동	40
빨래	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47	00:17	20:20	13:01
여수	02:27	08:51	15:13	21:03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19/25	21/26	21/27	20/28	20/29	21/30	21/30

# 법원, 동거녀 살해범 항소심서 중형

### 광주고법 "국가·사회 책임 막중" 10년 늘려 25년 선고

"극심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찰 등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자녀들에 대한 보복을 걱정하며 홀로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될 때까지 지켜주지 못한 국가와 사회 책임도 막중하다."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거론하며 동거녀 살해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9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도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혼자 고통을 감당했다"고 지적한 뒤 "뒤늦었지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막중한 점을 감안해(지금이라도) 엄중된 처벌을 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함평군 함평읍 주택 앞에서 동거녀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5·18희생자 모독

### 일베 20대에 집유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태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을 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생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주)오천경매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